

“불국사에 가면 ‘구품연지(九品蓮池)’를 찾으세요.” 이 땅이 곧 불국토임을 가람배치로 표현한 대표적 사찰 불국사. 매주 일요일이면 불국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 곳이 ‘관광지’가 아닌 ‘부처님의 나라’임을 알리기 위해 경주의 불교문화와 불국사를 안내하는 모임이 바로 ‘구품연지’.

구품연지는 94년 지도법사 정법스님(동국대 한문학과 재학)이 부처님오신날에 일반신도를 대상으로 안내를 하면서 비롯됐다. 신도들의 반응이 좋아 일주일에 한번씩 안내를 하게 되었고, 그후 96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들과 신도들로 ‘구품연지’(회장 이순형, 원성원지력발전소 계측제어부장)를 구성했다.

정법스님은 “불자들이와 관광객들 대부분은 불국사와 석굴암의 웅장한 모습과 아름다움에 몰입해 ‘불교문화제 특유의 감명을 전해주고 싶어 안내에 나섰다’고 말했다.

신도들이 정기적으로 사찰을 안내하기는 구품연지가 처음이며 유일한 모임이다. 학생들은 불국사는 물론 경주지역의 불교문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신도들

불국사안내 신도모임 구품연지

회원 30여명 일요일마다 가람배치등 자세히 설명

은 이를 토대로 공부할 한다.

1970년 복원 당시 잃어버렸던 청운교·백운교 앞의 구품연지를 복원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자는 의지를 담아 모임의 이름을 ‘구품연지’로 정했다. 97년부터는 30여명의 회원들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 등 세차례 불국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국사를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와 일본어 안내도 곁들이고 있다.

“불국사 안내책자는 많지만 문화재와 연학을 소개하는 차원에 머무는 게 대부분이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불국사가 곧 부처님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절을 찾는 사람들의 안내는 우리가 해야죠.” 회장 이순형씨는 “다른 사찰에서도 이같은 모임을 만들어 불교를 더욱 알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법스님은 “불교적 가치보다는 문화재적인 가치만 높이 평가하면 사찰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가능한 불자들이 중심이 되는 안내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opia.com)

농지법개정 촉구 조계종 본사주지모임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모임(회장 설조)은 6월 25일 경주 불국사에서 회의를 갖고 농지법 개정을 위해 종단 집행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본사주지모임은 또 국립공원 입장료폐지와 본사주지 등 종단 종진스님들을 징계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모임에는 설조스님(불국사주지), 모임(법주사주지), 종원스님(관음사주지), 성덕스님(동화사주지), 지선스님(백양사주지), 법장스님(수덕사주지), 법등스님(직지사부주지) 등 7명이 참석했다.

임연태 기자

뉴스 & 뉴스

고운사 16일 산중총회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법조) 후일 주지 추천을 위한 산중총회가 16일 오후 2시 고운사 우화루에서 열렸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해)는 6월 25일 회의를 갖고 “제16교구본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산중총회 일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판정. 고운사 산중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임연태 기자(tylim@buddhopia.com)

포교사고시 문제집 개정판

조계종 포교연구소(실장 효종스님)은 올 11월 시행될 포교사고시를 앞두고 최근 <포교사고시 예상문제집> 개정판을 펴냈다.

개정판은 95년판의 오답을 바로잡고 <불교교리>에서 문제를 신규 출제했다. 또 문제의 정답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입문서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정성운 기자

5일 염불만일회 정토행회

전국염불만일회는 IMF 극복과 민족통일을 위한 전국염불만일회 정토행회를 5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동산교육관에서 병행한다.

5일 현장스님(전남 대원사 주지)의 법회를 시작으로 12일 해장스님(강원 건봉사 주지), 19일 설산스님(서울 정토사 주지), 26일 한탄스님(담양 정토사 주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종교인협, 8·15사면 촉구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청화)는 6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인권협의회와 공동으로 8·15 양심수 및 장기수 대대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종협과 인권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심수와 장기수 대대사면을 촉구하고, 8월15일까지 각 단체별로 사면추구를 위한 서명활동을 홍보를 배포 등의 일정을 발표한다.

도필선 기자

8·15 통일축전 허용 '환영'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원)은 6월10일 북한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 단체대표회의의 명의로 '8·15 통일대축전'을 제안해 온데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통일대축전 허용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총련은 “정부의 '8·15 통일대축전' 허용방침을 획기적인 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며 “종교, 경제, 사회단체 대표들이 8·15 통일대축전에 관련된 제안 논의와 접촉이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허용하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 “불교의 대중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번 행사가 평화적으로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도필선 기자(psdo@buddh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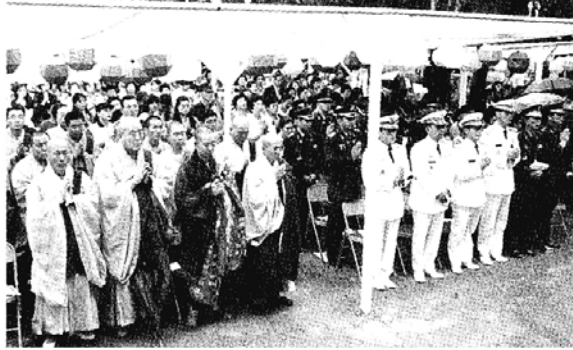
6·25 전몰장병 위령제 호국금강사등 전국 사찰서

6·25 제48주년을 맞아 전국의 각 사암은 전몰장병 고혼천도법회 및 보존가족 위안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육군 5군단 호국금강사(주지법사 김상래)는 6월25일 일주 조계종 총무원장, 윤덕 천태종 총무원장스님을 비롯 민·관·군 불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6·25전몰장병 및 희생영령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영가천도재를 시작으로 위령대제 달들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삼원사지, 도괴안사, 제2 땅굴, 월정리 전몰대, 노동당사, 백마고지 등 사찰과 전지지를 순례했다.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현)는 6월 25일 6·25전몰군경 호국영령왕생극락 49일 지장기도 회향법회를 대신 한발불교회(회장 원각)는 6월 25일 대전국립묘지 현충관에서 제6회 국태민안 세계평



6·25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들을 위해 참견된 육군 5군단 호국금강사는 6월25일 위령대제를 봉행했다.

조계종 성보관리 '직접' 사찰별 조사 문화재 신청

개별 사찰의 비지정 성보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정신청을 이르면 6월 19일에는 광주불교사찰연합회(회장 현지)와 육군 57사단 호국유마사(주지법사 문병렬)가 '호국영령 전몰군경 천도 방생대법회'를, 6월 16일에는 법륜종(총무원장 해우)이 대전 국립묘지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개최했다.

김중근기자 (gamja@buddhopia.com)

화재에 관한한 창구를 단일화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관리소홀로 유실되거나 현황과악이 불가했던 비지정 성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가능해졌다.

조계종은 이 사업을 95년부터 성보실태조사를 해 온 해인사 송광사 화엄사 월정사 법암사를 대상으로 확대실시해 지정가치가 높은 성보를 선별, 지정신청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개별사찰의 요구가 있을 때는 조사단을 파견, 정밀조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윤기서 기자 (gsyoon@buddhopia.com)

북문화자료 7만건 DB화-CD롬 추진

불교문화재 자료 상당수가 포획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문화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통일부는 21일 경향신문사가 추진해 온 '한민족문화 네트워크 연구소'의 남북협력사업에 승인했다. 연구소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스승 자료 20만건 등 7만건을 화상 음성 등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자료로 넘겨받아 '사이버 남북통합문화관' 및 인터넷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CD롬을 제작할 방침이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불교관련 자료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tylim@buddhopia.com)

설조·현고스님 등 '심'의 2일 조계종 재심 호계원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고산)은 5월11일과 22일 징계 결의된 설조(불국사주지) 현고(前 송광사주지) 법조(고운사주지)스님 등 9명의 스님들이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2일 11차 심판부를 개정한다.

임연태 기자

박물관 위탁 '반대' 김해시, 시민대상 설문

김해시와 김해박물관은 지방박물관 위탁운영과 관련 시민과 학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반대입장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반대의 이유로 지자체의 재정자립 빈약, 전문인력 부족, 문화재 훼손 등을 들었다.

“아빠 스님은 어디 갔나요? 빨리 데려오세요.” 요즘 원주 소쩍새마을 가족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원장 보각스님이 사임(3월27일)한 지 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원장이 공식인 상태에서 소쩍새마을은 방문객과 후원금이 줄어드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95년 7월 '가짜승 일력'이 운영하던 소쩍새마을을 인수해 열과 성을 기울여 정상화시킨 보각스님이 원장직을 그만둔에 따라 후원금과 방문객이 각각 이전의 20%, 50% 이하로 줄었다는 사실과 반찬등 후원 물품도 격감한 상태다. 특히 한 달에 120명씩 찾아오던 자원봉사자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 하루 한번 목욕해야 하는

아빠(?)없는 소쩍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횡성타운에는 최근 재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원장직함이 부여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소쩍새마을을 아끼는 한 관계자는 “현장의 공사가 석달 연기되면 완공이 석달 늦어지는 것이

지만 서류상의 시기를 놓치면 2, 3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계의 복지전문가들도 “원장이 공식인 상태로는 횡성종합복지타운 건립불사가 원만추진되는 어렵다”면서 “불교복지의 미래에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빠(?)없는 소쩍새

그러나 보각스님의 원장 복직은 소쩍새 마을을 운영하는 승가원 이사회(이사회장 지하스님)의 결단과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의 목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자들은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이란 대의를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양보가 있기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gkim@buddhopia.com)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뿌리 뽑힌다.

CELL FORTE (셀 포르테)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멕시코 국립대학의 임상연구 결과 관절염, 관절통, 중풍 기타 염증 등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관절염, 노화 등의 면역기능 강화에 의한 효능이 임상실험 결과 60명을 상대로 98%이상 효과가 입증되었다.

셀 포르테에 대한 석학들의 증언

- 미국 Jame 박사 "셀 포르테는 2억 2천 이상의 미국인들의 관절염을 치유하는데 주목할만한 물질이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 미국 Corade 박사 "셀 포르테는 현재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변형성 관절염의 치료에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기타 Iowa 대학 및 Wabash 대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
- 셀 포르테는 현재 세계 33개국에 수출중

한달분(180정) ₩220,000 / 2개월분(360정) ₩400,000

이영래(57세 복싱세계챔피언 트레너) 본인은 세계챔피언은 온성, 정정, 김용강등 많은 권투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 디스크에 만성신경통과 관절염으로 20여년간 고통을 받으면서 한약과 양약을 쓴다는 약 다 써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어 한 때는 지도자의 길을 포기할까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신문공고에서 셀 포르테가 좋다는 광고를 보고 속는 셈치고 2개월분을 구입하여 복용중에 처음에는 진통제 심해서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함께 복용하여야만 했습니다. 약 1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처도가 나타났고 10개월을 계속 복용하고 부터 저의 몸은 정상을 되찾았고 현재는 거지같이 아프던 손가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세계 챔피언을 만들고자 마음 졸이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와같이 고통을 받고있는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이 사례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실으로 저의 건강을 찾아온 삼한삼입에 감사드립니다. ▶ 이영래

▶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 예금주 : 삼천선업
- 농협 : 394-01-004150
- 우체국 : 100149-0210155

※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 (동기, 소포우송)

정보원 서울:(대) 790-8200
본사: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08번지

※ 셀 포르테의 자세한 안내 책자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소록 알려 주십시오.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는(자연향) 테크핀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항비 香妃!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항비를 신랄한(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족화합물의 성분이 신랄함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항비는 자연향인 피넛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임파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랄한(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생시킵니다.
이제 항비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혈의 순환, 몸의 효능, 악취의 제거, 목각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머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 불규칙적이거나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대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인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말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배근하거나 힘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체질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굽어질 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 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항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재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항비팩을 배꼽(신랄혈)에 찌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만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썹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항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질 정도로 항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사를 드립니다.(서초구 정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